

# 일제 강점기 일간지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 시대일보·중외일보·매일신보(1910—1930) 소재  
동시를 중심으로

박 경 수\*\*

## 차 례

- |                                     |                                |
|-------------------------------------|--------------------------------|
| I. 들머리                              | 2. 중외일보의 경우                    |
| II. 시대일보·중외일보를 통해 본 경남·부<br>산지역의 동시 | III. 매일신보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의<br>동시 |
| 1. 시대일보의 경우                         | IV. 결론                         |

## I. 들머리

이 글은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  
기 위한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맡아서 진행하는 가운데 필자에게 부여된 과제  
인 <일제 강점기 일간지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을 수행하는 일  
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2-AS1511).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일제 강점기 일간지 신문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 등 이른바 중앙 언론매체로서의 일간지들뿐만 아니라 경남·부산지역에서 발행된 경남일보 등 지역 언론매체로서의 신문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언론매체들은 특히 일제 강점기 동안에는 ‘학예면’ 등을 통해 문학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공공매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했다. 여기에 성인들에 의한 동시(동요 포함), 동화, 아동극, 아동문학평론 등 아동문학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동문학 관련 문예작품의 현상공모, 아동란 또는 어린이 페이지 등의 신설 등을 통해 어린이 문예작품들도 활발하게 발표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신문들은 아동문학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공공적 기능을 담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전제에서 필자는 일제 강점기의 일간지신물들에 발표된 아동문학 관련 글과 작품들을 꼼꼼하게 조사, 연구하는 일을 수행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동안 발간된 일간지신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아동문학 작품들을 조사, 연구하는 일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일의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대상과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일제 강점기 일간지를 통해 본 아동문학 전체를 논의하기 위한 첫 단계 작업인 만큼, 논의의 대상 신문을 시대일보, 중외일보, 매일신보로 한정하고, 그 시기도 1930년까지로 한다. 여기서 시대일보, 중외일보는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로 이어지는 신문으로, 그동안 아동문학 관련 작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다고 생각되는 일간지이며, 매일신보 역시 아동문학 연구에서 거의 배제되다시피 한 일간지이면서 이들 신문과는 그 언론이념에서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신문이었다는 점에서 우선 선택되었다. 논의의 시기를 1930년까지 한정하는 것은 중외일보가 종간되는 시기가 마침 1930년 9월이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면서도, 대체로 1923, 4년부터 1930년까지를 근대 아동운동이나 아동문학의 성장기 또는 전성기로 보는 견해<sup>1)</sup>를 따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시 이 글은 아동문학의 전 분야를 한꺼번에 파악하기보다 특정 장

1) 이재철은 『아동문학개론』(개정판, 서문당, 1983), 54쪽에서 1923년부터 1930년까지를 근대적 아동문학의 형성기로 설정하고 있고, 김정희는 『한국소년운동사의 시기구분론』, 『한국의 소년운동』(도서출판 해안, 1999. 5), 139쪽에서 이재철과 같이 1923년부터 1930년까지를 근대 소년운동 전성기로 보고 있다.

르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조사, 연구가 훨씬 생산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 아동문학 중에서도 동시에 관해서만 집중 논의하기로 한다. 논의의 방향은 당시 동시를 중심으로 한 작품 발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서지 작업의 결과를 먼저 제시한 후, 이를 토대로 경남·부산지역의 동시형성과 전개과정을 고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경남·부산지역의 동시는 당시 발표된 시와 동시를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자리를 거쳐 시인별로 논의하되, 시인별 동시의 전개과정에서 의미가 있거나 시문학사 또는 시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를 가지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시인별 동시 작품이나 제재별 또는 주제별 특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논의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그리고 일간신문에 발표된 아동문학의 다른 장르인 아동소설, 아동극, 아동문학 비평에 관해서도 후속적인 논의에 넘기고자 한다.

## II. 시대일보·중외일보를 통해본 경남·부산지역의 동시

### 1. 시대일보의 경우

시대일보(時代日報)는 1922년 9월 3일부터 시사종합 주간지로 발행되었던 『동명(東明)』의 후신으로 창간된 신문이다. 『동명』은 당시 사장에 최남선(崔南善), 편집 겸 발행인에 진학문(秦學文)을 두고 발행되었는데, 1923년 6월 3일까지 통권 41호로 발간된 후 중단되었다가, 같은 해 7월 17일 일간지로 발행하는 것을 허가 받고 다음 해인 1924년 3월 31일부터 시대일보로 전환되어 발행된 것이다. 창간 당시의 진용은 사장 최남선, 편집국장 진학문, 정치부장 안재홍(安在鴻), 사회부장 염상섭(廉尙燮) 등이었다.

시대일보는 기존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와 달리 1면을 정치면으로 하지 않고 대담하게 사회면으로 구성하는 등 체제를 혁신하여 주목받는 3대 민족언론신문으로 출발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경영난에 내분 등이 겹쳐 여러 우여곡절

을 겪었다. 1925년 4월 초에는 사장 홍명희(洪命熹), 편집국장 한기악(韓基岳) 등으로 진용을 바꾸어 재출발을 했으나, 결국 경영난을 타개하지 못하고 1926년 8월 중순까지 발행한 후 휴간에 들어갔다. 그러다 이상협(李相協)이 같은 해 9월 18일부터 중외일보(中外日報)로 제호를 바꾸어 다시 신문 발행의 허가를 받았다.

먼저 시대일보에 발표된 동시 작품의 상황부터 개괄적으로 파악해 보자. 1924년부터 1926년 폐간될 때까지 발표된 시가 작품들을 일별할 수 있도록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년도	시	시조	동시	기타	계
1924	35	1	4		40
1925	47	15	18	1(창가)	78
1926	73	7	26	1	106
계	155	23	48	2	225

이상의 표에서 제시된 통계는 현재 신문의 결본, 누락 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시가 분야의 발표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성을 가진다고 본다. 대체로 해가 갈수록 발표 작품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동시 작품의 발표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전체 225편의 시가 작품들 중에서 동시가 48편으로 21.3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일보가 동시에 관해서도 제법 많은 지면 할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시대일보 이외에도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도 당시에 아동 관련 글과 작품을 상당한 정도로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신문의 독자층을 문맹률이 높은 기성세대보다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를 겨냥했던 일반적인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시대일보는 신문 발행을 주관했던 최남선, 진학문, 홍명희 등이 소년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년문화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이었던 점도 아동문학 관련 글과 작품의 비중이 적지 않았던 한 요인으로 보인다.

위에서 동시를 발표한 이들 중 2편 이상 발표한 이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6편 : 윤복진(尹福鎭)

3편 : 이응규(李應奎), 김소운(金素雲)

2편 : 유지영(柳志永), L. K. So, 최수동(崔壽同, 壽童), 방은주(方恩珠), 복동(福童)<sup>2)</sup>

이상에서 윤복진(1907~1991, 대구)<sup>3)</sup>은 시대일보에 동시를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1925년 9월부터 『어린이』를 통해 여러 편의 동시를 발표한 바 있다.<sup>4)</sup> 그렇지만 1926년 5월 2일에 발표된 <북간도로 간 아버지> 이후 폐간 때까지 지속적으로 동시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일보가 그의 동시를 발표하는 주요 매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김소운(金素雲: 1907~1981, 부산 영도)은 이응규(李應奎, 서울)<sup>5)</sup>와 함께 동시 3편을 발표하고 있는데, 단연 주목되는 시인이 김소운이다. 그는 우선 부산지역 출신인데다 1925년 한 해 동안에도 시와 동시를 합쳐 15편이나 되는 작품을 시대일보에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sup> 김소운 역시 시대일보가 시는 물론 동시를 발표한 중요 매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수동(崔壽同) 또는 수동(壽童)으로 동시를 발표한 이는 최호동(崔湖東, 湖東子)과 동인 인물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호동은 1925년과 1926년에 걸쳐 시대일보를 통해 여러 편의 시와 동시를 발표한 주요 시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렇지만 최호동의 시 <무제>(1925. 12. 31)의 끝에 ‘阿峴里

- 2) 같은 시기에 동아일보에 선우복동(鮮于福童), 복동(福童)이란 필명의 시가 보인다. 동인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 3) 윤복진의 생애와 동시 세계에 대해서는 원종찬, 『동요시인 윤복진의 작품세계』, 『아동문학과 비평정신』(창작과비평사, 2001)에서 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윤복진은 김수향(金水鄉)·김귀환(金貴環)이란 필명을 쓰기도 했다.
- 4) 하청호, 『윤복진론 —자연친화와 동심적 서정의 요적 변용』, 이재철 편, 『한국아동문학 작가작품론(전편)』(서문당, 1991), 196쪽의 각주 3)에 의하면, 윤복진의 동시로 가장 앞선 작품이 『어린이』(1925. 9)에 발표된 <별 따라 가세>라고 밝히고 있다.
- 5) 소속이 ‘경성죽서공보(京城竹溪公普) 오학년(五學年)’으로 나와 있다.
- 6) 김소운의 작품활동이 “1923년 시대일보(時代日報)에 시 <신조(信條)>를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시대일보는 1924년부터 발행된 데다가 <신조>란 작품을 찾을 수 없다. 소운(素雲)으로 시대일보에 발표한 작품으로 가장 앞서는 것이 1925년 11월 1일자에 발표된 <개암이>, <문을 두드림>인데, 모두 동시 작품들이다.

一隅에서'란 부기를 통해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시인으로 보인다. 김소운 외에 경남·부산지역과 연고를 가지고 동시를 발표한 이가 L. K. So란 필명을 쓴 인물이다. 작품 발표를 하면서 필명 위에 '어부산(於釜山)'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필명만으로 실제 이름을 알 수 없어 아쉽다.<sup>7)</sup> 이외 부산과 연고가 있는 시인으로 노해용(盧海容)과 최석하(崔夕霞)가 동시는 아니지만 시를 한편 발표하고 있다.<sup>8)</sup>

여기서 김소운의 동시 <누의>(1925. 11. 2) 일부와 L. K. So의 동시 <새별>(1924. 6. 24)을 보자.

① 떨어진꽃송이  
얼굴에다히며  
限업는孤寂에  
눈물지울때  
날위로하야줄  
누의나잇섯드면  
남모를 설음을  
가슴에 싸안고  
일업시 헤매는  
애닦은 이가슴  
누의나잇섯드면<sup>9)</sup>

② 창틈으로 하늘보니  
별두별두 만치요  
하늘쌍쌍 부지기수.

별하나 꿈 꿈

---

7) L. K. So는 L. K. S란 필명으로 민요시 <물방아> 등 3편(1924. 6. 23~24)을 따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L. K. S란 필명이 부산 연고 시인으로 동아일보에 1924년부터 30편에 달하는 동시와 시를 발표한 이경손(李慶孫)의 영문 이름 첫 글자와 닮은 점이 많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8) 노해용(盧海容)은 시 <애인의 선물>(1924. 5. 30)과 <가는 봄>(1925. 6. 5)을 시대일보에 발표하고 있고, 최석하(崔夕霞)가 시 <바다의 울음>(1926. 1. 24)을 발표하고 있는데, 작품 끝에 '부산(釜山) 부두(埠頭)에서'라고 부기한 데서 부산과의 연고를 짐작할 수 있다.

9) 이하 작품의 인용은 원문대로 한다.

나하나 쏭 쏭  
 별 들 쏭 쏭  
 나 들 쏭 쏭

요기조기 다세라니  
 별애기 서로보고  
 생긱뻥긱 웃어가며  
 쑥쑥 다숨는다.

별도숨고 나도 숨고  
 압울안에 나도 숨고  
 동무일흔 저수탑만  
 애고데고 쑥끼오.

①의 시는 별도로 ‘동시’나 ‘동요’라 표시하지 않았지만, 시적 화자가 어린이로 설정되고 있고,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점이 동시의 성격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한자가 섞여 있고, “남모를 설음”이니 “애답은 마음”이니 하여 막연한 애상성을 표현하고 있는 점이 시적 성취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②는 밤하늘에 별을 세며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로 부르는 전승동요의 시상을 활용하면서, 하늘에 가득 찼던 별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모습을 숨바꼭질 놀이에 비유하여 표현했다. 거기다 별과 내가 어울려 노는 즐거움을 한층 정서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동무일흔 저수탑만/애고데고 쑥끼오”라고 하여 대조적인 상황 묘사로 연결하여 마무리함으로써 비교적 성공적인 작품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아동문학과 관련하여 1925년에 신년문예현상 공모와 하기독자현상문예를 실시한 점은 이채롭다. 1925년 신년문예현상에는 동요 부문에 김상희의 <새봄>(1925. 1. 1)이 당선작 없이 2등으로 뽑혔으며, 하기독자현상문예에는 이용규(李應奎, 경성)의 동시 3편(1925. 11. 1 발표)이 1등부터 3등을 독차지했다. 그리고 1926년 제2회 때는 이미소(李微笑, 본명 李定鎬: 1906~1938, 경남 의령)<sup>10)</sup>의 <언니야 래일은 언제나 오니?>와 반병덕(潘柄惠, 충북 음성)의 <첫

10)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일지사, 1978), 157쪽 참조. 이 글에서는 이정호의

눈>(이상 1926. 1. 5 발표)이 당선작 없이 공동 2등으로 뽑힌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경남 의령 출신인 이정호의 동시를 보자.

언니야 날더러 거죽말마라  
래일은 엄마가 오신다드니  
오늘도 해지고 달은떴는데  
한번간 엄마는 안오시누나

언니야 래일은 언제나오니  
어제밤 밝은면 온다든래일  
오늘도 래일은 차저왔건만  
한번간 엄마는 안오시누나

언니야 래일은 언제나오니  
솟피는 봄부터 온다든래일  
눈오는 겨울도 김허가는데  
한번간 엄마는 안오시누나

이 시는 일명 ‘타박네 노래’로 불리는 전승동요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타박네 노래’는 어린 아이가 사별한 어머니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한 동요인데, 이 작품 역시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어린 아이의 애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부재’와 연관된 모성에 대한 그리움은 전승동요와 동시의 중요한 주제를 이룬다고 하겠는데, 특히 일제 강점기에 발표된 이와 같은 주제의 동시 작품은 당시의 척박했던 역사적 상황과 일정한 컨텍스트를 이루는 측면이 있다.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부재 현상은 다른 어떤 상황보다 심각한 상황이면서 그것이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삶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는 언니를 청자로 한 동생의 일방적 대화 형식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언니야 래일은 언제나오니”로 시작된 동생의 물음에서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묻어나지만, 결국 “한번간 엄마는 안오시누나”란 현실상황에 대한 인

---

지역 연고가 나와 있지 않지만, 박태일 엮음, 『가려 뽑은 경남·부산의 시(1) — 두류산에서 낙동강에서』(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465쪽의 시인 해적이에 경남 의령에서 나고 호가 평계, 일본 아테네·프랑스에서 공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식만 얻게 된다. 어머니의 부재가 해소되는 진정한 ‘내일’은 불가능한 셈이다. 그런데 이 시는 이러한 어머니의 부재 현실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반복적 구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일 어휘의 반복적 표현과 변화 없는 반복 구문이 시상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시적 긴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대일보 지상에는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시를 발표한 경남·부산지역 연고 시인으로 김소운, L. K. So, 이정호를 찾을 수 있다. 동시를 비롯한 아동문학 작품들은 1924년 기점으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시대일보에 발표된 동시는 바로 근대 초창기 동시 형성 단계에서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여기서 특히 김소운의 동시가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 단계에서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고, 이정호의 이른 시기 동시 작품도 ‘어머니의 부재’와 연관된 주제가 일제 강점기의 척박한 현실과 일정한 대응을 이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으로 새겨진다. 시대일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남·부산지역의 귀중한 동시 작품들인 셈이다.

## 2. 중외일보의 경우

이상협 [李相協: 1893~1957, 소설가, 호는 하몽(何夢), 서울] 이 시대일보를 인수하여 제호를 중외일보로 바꾼 다음 1926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창간한 민족 언론지이다. 창간 초기에는 백연기(白演基)가 재정적인 지원을 했으나 여의치 않다가, 1929년 9월부터 주식회사로 개편하고 사장에 안희제 [安熙濟: 1885~1943, 호는 백산(白山), 경남 의령], 부사장에 이상협이 취임하여, 조석간 4면씩 하루 8면씩 발행하면서 의욕적인 재출발을 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경쟁을 벌이는 한편, 일제의 식민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에서 당시에 가장 강한 항일 비판의 언론을 펼쳤다. 따라서 1929년 이후에 발표되는 중외일보의 학예면 글들도 전반적으로 강한 사회비판의 담론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동문학 분야의 동화, 동시, 아동문학평론 등의 글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의욕적인 재출발에도 불구하고 중외일보는 어려운 재정난 때문에 한동안 정간(1930. 10. 5~1931. 5. 31)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1931년 6월 1일자로 다시 속간을 했으나,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1931년 6월 19

일자 지령 제1492호를 마지막으로 중간이 되고 말았다. 그후 중외일보의 판권은 중앙일보(中央日報)의 제호로 바뀐 다음 같은 해 11월 27일 제1493호로 새로 출발하였다.

여기서는 중앙일보로 제호가 바뀌기 이전인 1931년 6월 19일까지의 중외일보를 대상으로, 당시에 발표된 동시 작품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런데 1931년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발행된 중외일보에서는 학예면이 없었던 까닭에 문학작품은 한 편도 발표될 수 없었다. 따라서 중외일보의 학예면을 통한 문학작품의 발표는 실제 1926년 11월 15일부터 1930년 10월 4일까지로 제한된다. 약 4년간에 걸친 시 분야의 작품 발표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년도	시	시조	동시	계
1926	17	1	31	49
1927	66	7	118	191
1928	203	2	204	409
1929	368	16	137	521
1930	112	1	374	487
계	766	27	864	1657

시대일보에서 중외일보로 바뀌면서 전체 시가 작품들 중에서 동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늘어났다. 1926년 11월부터 1930년 10월까지 4년 정도의 기간까지 동시가 864편으로 전체의 52.14%로 과반수가 되어 오히려 성인시 작품들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1930년에 발표된 동시는 성인시의 숫자를 오히려 넘어설 정도로 동시 발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중외일보는 동시 발표와 수용에서 중요한 공공매체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했음을 알 수 있다.

중외일보에 많은 성인시와 동시 작품들이 발표될 수 있었던 데에는 중외일보의 편집 방침이나 방향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1929년 1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의 ‘독자문단’, 1930년 2월부터 3월 초까지의 ‘중외시단’, 그리고 1930년 3월 16일부터 8월까지 ‘아동작품’란을 고정란으로 두어서 독자 투고의 시작품들을 적극 게재함으로써 시 분야의 작품 발표를 크게 진작시켰다. 1929년부터 1930년에 걸쳐 발표된 시작품들은 바로 이러한 중외일보의

편집 방침과 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이상에서 동시 작품들의 발표 상황을 연도별로 살펴보자.

먼저 1926년도에 발표된 32편의 동시를 필자별로 보면, 마운곡(馬雲谿)이 7편, 유경성(劉慶成, 원산)<sup>11)</sup>이 4편, 춘서(春曙)가 3편, 석영록(石永祿)과 이성로(李城路, 성로)가 2편, 소천(小泉), 김광균(金光均)이 각각 1편씩이다. 이중 마운곡, 석영록,<sup>12)</sup> 춘서<sup>13)</sup>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 아쉽지만, 이성로는 우이동인(牛耳洞人) 등의 필명을 쓴 이학인(李學仁)의 또 다른 필명임이 확인된다. 그리고 비록 1편의 동시를 올리고 있지만, 소천(小泉)과 김광균(金光均)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들은 곧姜소천(姜小泉: 1915~1963, 함경 고원)과 1930년대 주로서를 쓴 김광균(金光均: 1914~1993, 경기 개성)으로 파악된다.<sup>14)</sup> 이들이 불과 12, 13세의 어린 나이로 동시 작품을 투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상의 동시 필자 중에 경남·부산 지역과 연고를 가진 인물로 확인되는 이는 없다.

1927년도에도 많은 동시 시인들이 중외일보를 매체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송완순(宋完淳: 1907~?, 충남 대덕), 지수룡(池壽龍, 서울), 김영희(金英熙, 용인)<sup>15)</sup>가 각 10편, 이동찬(李東贊)이 9편, 윤복진이 8편,

11) 동아일보 1926년 12월 26일자의 '어린이 작품'란에 <눈 온 아침>을 발표하면서 '원산'으로 소속을 밝히고 있다.

12) 『중외일보(학예면)』(국학자료원, 1985)의 '작가·필자별 색인'(18쪽)에 석영록(石永祿)이 신석정(辛夕汀)의 필명임을 부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기에, 석영록이 신석정일 가능성만 남겨 둔다. 신석정(1907~1974, 전북 부안)은 조선일보에 '소적(蘇笛)'이란 필명으로 <기우는 해>(1924. 11. 24)를 처음 발표했으며, 이 외에도 석지영(石志永), 호성(胡星), 석정(釋靜) 등의 필명으로 작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그가 '석영록'이란 필명을 쓴 점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13) 같은 시기에 매일신보에서도 춘서(春曙) 또는 마춘서(馬春曙)의 이름이 보인다.

14) 김광균의 투고시 <가신 누님>(1926. 12. 24)의 이름 위에 '14세'로 표시되어 있다. 김광균의 생년월일은 음력으로 1913년 12월 23일이기 때문에, 음력으로 계산한 나이로 '14세'라고 할 수 있다. 김학동도 이 점에서 <가신 누님>을 김광균의 첫 작품으로 올리고 있다. 김학동, 『김광균의 생애와 문학』, 김학동 외, 『김광균연구』(국학자료원, 2002), 328~331쪽.

15) 동아일보 1928. 8. 10자로 발표된 동시 <반디불>에 김영희의 소속이 '용인'으로 나와 있다.

김석연(金石淵)이 6편, 김계담, 우태형(禹泰亨)이 각 5편, 윤석중(尹石重: 1911~2003, 서울생), 박두언(朴斗彦, 만경), 산양화(山羊花)가 각 4편, 전병덕(全秉德)이 3편, 곽노엽(郭蘆葉), 김사엽(金思燁, 대구), 연점룡, 박세혁(朴世赫), 홍현진(洪鉉辰)이 각 2편씩 작품을 올리고 있다. 이들 중 경남·부산지역 시인으로 분명히 들 수 있는 시인은 없다. 다만, 진주의 정태이(鄭太伊)가 <이슬>(1927. 6. 20)이란 동시 1편을 투고하고 있을 뿐이다. 경남·부산지역 출신으로 드문 만큼 작품을 보자.

진주가티동그란  
 이슬방울이  
 푸른풀넙사귀에  
 입을마추며  
 아름다운얼굴에  
 꿈꾸는것을  
 나는나는가만히  
 보았습니다  
 풀넙에서잠자는  
 이슬방울이  
 붉은해가솟으면  
 죽는다고요  
 풀넙사귀설어워  
 눈물지는것  
 나는나는가만히  
 보았습니다

풀잎에 이슬방울이 맺힌 모습을 풀잎에서 꿈꾸며 자고 있는 아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한 숨씨는 감쌀 만하다. 풀잎과 이슬방울의 일체화된 세계를 묘미 있게 그려낸 셈이다. 그러나 끝부분에서 “붉은해가솟으면/죽는다고요”라는 대목을 앞부분과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으로 처리함으로써 시적 상황의 급반전에서 오는 상치감(相馳感)이 시적 정서의 통일성을 해치는 결과가 되고 있다.

1928년도에 들어오면, 경남·부산지역 시인으로 동시를 발표한 이로 김고계(金孤桂, 경남 의령),<sup>16)</sup> 이구월(李久月), 양우정(梁雨庭), 이원수(李元壽)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의령 출신인 김고계는 동시 <생각>(1928. 2. 28) 1편을 발표한 뒤 1929년부터 중외일보에 집중 동시를 발표했다. 다음 이구월(본명: 錫鳳, 1904~?,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통영 주로 거주)<sup>17)</sup>은 35편의 동시(민요시 등 성인시 6편을 합하면 40편)를 집중 발표함으로써 동시를 가장 많이 발표한 시인으로 드러난다. 그가 동시 시인으로 등장하여 성장했던 무대가 바로 중외일보였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양우정(본명 梁昌俊: 1907~1975, 경남 함안)<sup>19)</sup>도 동시 5편을 포함하여 22편의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구월의 경우와 같이 중외일보가 시 발표 주요 매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원수(1911~1981, 경남 양산에서 태어나 마산에 주로 거주)는 이미 1926년 4월에 동시 <고향의 봄>이 『어린이』에 입선된 이후 동시 시인으로 활약하고 있었는데,<sup>20)</sup> 중외일보에서도 동시 <무지개>(1928. 5. 30)를 찾을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동시 시인으로 성장한 면모를 파악하는 데 일조를 하는 셈이다. 이들 외에 경남·부산지역의 동시 시인들인 이주홍(李周洪: 1906~1987, 경남 함천)과 김병호(金炳昊: 1904~1959, 경남 하동)<sup>21)</sup>가 중외일보에 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시작품들이 비록 동시 작품들은 아니지만 동시 시인으로서의 성장 과정을 파악하는 데 의미를 가지는 작품들이다. 특히 이주홍의 시 <고향의 동무들이여>(1928. 3. 30)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의 문학작품으로 활자화된 첫 작품에 해당된

16) 중외일보 1928. 2. 28자로 발표된 동시 <생각>에 김고계의 소속이 '의령'으로 나와 있다.

17) 이구월은 마산에서 태어났지만 고성과 통영에 주로 거주하면서 문학활동을 했다. 그는 이석봉(李石峯)이란 필명으로도 동시를 발표했다.

18) 이구월이 본격 동시를 쓰기 시작한 1928년도에 중외일보 외에 조선일보에도 동시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3편만 발표하고 있다. 1929년도에도 조선일보에는 2편의 작품만 보인다.

19) 양우정의 생애와 문학에 관해서는 서범석 편저, 『우정 양우정의 시문학』(보고사, 1999. 1)를 참고할 수 있다. 그의 동시에 관해서는 필자가 『계급주의 동시 이해의 밑거름 —'푸로레타리아동요집' 『불멸』에 대하여』, 『지역문학연구』 제7집(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3. 9)에서 부분적으로 다룬 바 있다.

20)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앞의 책), 224쪽.

21) 김병호는 경남 하동군 하동읍 죽도리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주로 성장하고 문학활동을 했던 지역은 진주이다. 따라서 그는 진주시인으로 통칭될 수 있다. 김병호의 생애와 동시 시인으로서의 면모에 관해서는 줄고, 『김병호의 동시와 동시 비평 연구』, 『국제어문』 제29집(국제어문학회, 2003. 12) 참조.

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sup>22)</sup>

경남·부산지역 시인들인 이구월, 양우정, 이원수의 동시를 한 작품씩 보자.

① 냇가에서 버들피리

내가불적엔  
잔디밭헤 쏘족쏘족  
풀이낮서요  
쓸압헤서 바람나무  
피리불적엔  
우러머님 솟구경  
가섯습니다  
산기슬 오늘에은  
혼자누어서  
보리피리가늘게  
불고잇스니  
풀은넙은 산들산들  
춤추는데  
노랑나뭇 두마리가  
날고잇서요

—<피리>(1928. 5. 22) 전문

② 무지개다리 나럿네

한울다리 나럿네  
순이야너도가자!  
복동야너도가자!  
세동모 나와보니  
고혼다리 간곳업고  
구름새서 햇님이  
웃고잇서요

—<무지개>(1928. 5. 30) 전문

③ 쓸압헤 해바라기는

해를보고서 종일돌지요  
해가그립어 짜라돌지요

---

22) 줄고,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동시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5집(한국문학회, 2003. 12) 참고.

뒷집에 어린아기는  
 엄마그리워 종일울지요  
 불국새불국 짜라울지요

—〈해바라기〉(1928. 7. 3) 전문

①, ②, ③은 차례대로 이구월, 이원수, 양우정의 동시 작품들 중에 중외일보에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이다. 이상의 작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때까지만 해도 이들 시인들의 동시 작품들에서 계급주의적 색채는 찾아볼 수 없다. ①은 피리를 부는 상황을 흥겨운 정경들과 연결시키고 있다. 잔디밭에 풀이 솟아오르고, 어머니가 봄 경치를 구경하러 가고, 나비가 짝을 지어 춤을 추고 있는 정경과 피리를 부는 화자의 심정이 흥겨움의 정서로 일체화되어 있는 것이다. ②의 동시도 무지개가 떴다 사라지는 상황을 ‘하늘다리가 내려왔다고 표현한 것이나, 무지개가 사라진 상황을 “구름새서 햇님이/웃고있서요”라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을 아름답고 밝게 보고자 하는, 긍정적인 세계인식에 따라 동심을 노래했다. ③의 동시는 앞의 두 작품들과 달리 ‘그리움’의 감정을 병행구문(parallelism)을 이용하여 유사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정하여 노래함으로써 정서적 동일시를 이루고자 한 것이지만, ‘돌다’와 ‘올다’가 주는 상황의 상반성 때문에 정서적 호응에 실패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경남·부산지역 시인들은 아니지만, 1928년도 중외일보에 광복산(郭福山, 전북 김제)<sup>23)</sup>이 17편, 현동렴(玄東濂, 개성)<sup>24)</sup>이 11편, 김계담, 송완순이 9편, 윤복진이 8편, 전기영(全基永, 전북 고산)<sup>25)</sup>이 7편, 윤석중 6편, 김청엽(金靑葉), 강순겸(姜順謙)이 각 5편, 남응손(南應孫, 전북 고산)<sup>26)</sup>, 지수룡(池壽龍, 서울)이 각 4편, 유정희(劉貞姬, 경기 강화), 이동찬(李東贊, 전북 고산)<sup>27)</sup>이 3편씩의 동

23) 광복산의 동시 <아버님 생각>(1928. 4. 23)에서 이름 위에 ‘김제(金堤)’로 나와 있다.

24) 현동렴의 동시 <귀여운 별들>(1928. 4. 6)의 이름 위에 ‘개성(開城)’으로 나와 있다.

25) 전기영의 동시 <꽃씨>(1928. 4. 6)의 이름 위에 ‘고산(高山)’으로 나와 있다.

26) 동아일보에 발표된 남응손의 동시 <가을>(1928. 8. 24)에 ‘고산(高山)’으로 나와 있다.

27) 동화시 <맘씨 조흔 신복(信福)>(1928. 3. 17)의 이름 위에 ‘고산(高山)’이라 표시하고 있다. ‘고산’이 현재의 전북 완주군 고산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 중 김청엽, 강순겸의 출신이나 지역 연고를 알 수 없으나, 더 이상 경남·부산지역 시인은 없는 듯하다.

1929년도 중외일보에 동시를 발표한 시인들을 작품 수에 따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윤복진 15편, 최수환(崔壽煥) 9편, 태재복(太裁馥, 太在福, 太小峯), 박호연 각 7편, 김고계(金孤桂, 경남 의령) 6편, 윤원구(尹元求) 5편, 김사엽, 남웅손 각 4편,<sup>28)</sup> 이구월, 현동림, 이화룡(李華龍), 이득화(李得華), 고삼열(高三悅), 정상규(鄭祥奎, 경남 진주) 각 3편, 백하(白夏, =朴世永?), 이영희(李泳熙, 경남 의령), 이재표(李在杓, 경남 진주), 박순석(朴順錫), 우태형, 손해망(孫海望) 각 2편

이상에서 경남·부산지역 시인으로 이구월, 김고계, 정상규, 이영희, 이재표의 이름이 보이고, 이상의 명단에는 없지만 양우정, 손길상(孫桔湘),<sup>29)</sup> 고몽(孤夢, 경남 진주)<sup>30)</sup>의 동시도 1편씩 중외일보에 올라 있다. 이들 중 눈길을 끄는 이가 경남 의령 출신인 김고계와 이영희, 그리고 경남 진주 출신으로 이 시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시를 쓴 정상규, 이재표, 손길상이다.

먼저 김고계는,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1928년도에 동시 <생각>(1928. 2. 28)을 중외일보에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 1929년 들어 동시 6편과 성인시 5편도합 11편의 시를 ‘독자문단’란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중외일보가 그의 시작품 발표의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고계와 같은 경남 의령 출신인 이영희도 1929년 들어 ‘독자문단’란을 통해 처음 얼굴을 내미는 시인이다. 그는 동시 2편과 민요시 2편을 1929년도 중외일보에 발표했다. 김고계와 이영희의 동시를 보기로 하자.

- ① 하로사리가난한 우리집엔요  
그름밤집안식구 모여안저서  
걱정에잠기어서 한숨실대요

28) 남풍월(南風月)로 발표된 2편을 포함했다.

29) 손해망(孫海望)으로 발표한 이가 손길상과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1929년도 중외일보에 발표된 손길상의 동시는 3편이 된다.

30) 고몽(孤夢)의 동시 <봄비>(1929. 3. 18)의 이름 위에 ‘진주(晉州)’로 나와 있다.

우리누나올면서 썰인어조로  
『아버님어머님은 용서하세요  
우리집지난형편 못보겠스나  
정도에팔이여서 가겠습니다』  
나는그말듯고 어이업서서  
누나야고암질너 불냈습니다  
지금은우리집안 가난하지만  
내가커서일하면 걱정업서요  
고런말입맞게도 내지마세요  
내아버님어머님 불상도하지  
그말듯고안져다 눈물지우네

—〈누나야 어대로 가라하느냐〉(김고계, 1929. 3. 6) 전문

② 들밭헤허재비

하아우서워  
파나마모자쓰고  
양복을입고  
날너오는새들만  
파수봅니다

양복쟁이허재비  
하하우서워  
검은눈홀금홀금  
눈짓을하며  
날너오는새들을  
파수봅니다

—〈허재비〉(1929. 10. 21) 전문

이상에서 ①의 김고계의 동시는 시의 화자가 가난한 집안 현실 때문에 누나가 청투에 팔려가게 된 상황을 제시하면서, 장차 열심히 일해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계급주의의 이념적 색채를 느낄 수 없으나, 일제 강점기의 궁핍한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이영희의 동시 ②는 ①처럼 현실의 심각성을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시적 소재인 ‘허재비(허수아비)’를 별난 모습의 대상으로 희화시킴으로써 해학적인 상황을 그리고자 한 작품이다. 김고계의 동시가 대체로 당대 현실과 좀더 밀착되어 있으면서 가족 성원간의 인정이나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들이라면, 이영희의 동

시는 현실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기초로 시적 대상의 특징적인 면모를 해학적으로 그려내고자 했다.

다음 경남 진주를 연고로 한 정상규, 이재표, 손길상 세 시인도 1929년 들어 중외일보에 처음 이름을 올리는 시인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시세계와 관련한 특징을 이해하는 데 다음 김병호의 글이 많은 도움을 준다.

① 鄭祥奎 君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少年作家의 한 사람이다. 그는 階級意識이 確立된 피오니-로이다. 工場과 農村을 題材삼아 無産派 立場에서 푸로童謠를 써주는 者는 少年作家 中에는 새힘社 동무들이요 그 中에도 이 鄭祥奎 君일 것이다.<sup>31)</sup>

② 李君(필자 주: 李在杓)은 晉州邑에서 한 三마장이나 먼 夜學校 指導者로서 밤마다 늦도록 그들을 가르치며 낮이면 재갈 실는 勤勞少年이다.<sup>32)</sup>

③ 새힘社의 동무인 만큼 題材와 作品行動이 무리를 뛰어넘는 것이 있다. 孫君(필자 주: 孫桔澗)은 只今 勞動夜學을 獻身的으로 支持하고 있다.<sup>33)</sup>

김병호가 위의 글들을 쓸 때는 1930년대 전반기이다. 그는 1930년 3월 말에 진주에서 김해 생림에 있는 초등학교로 좌천되어 갔지만, 그 이전 주로 진주에 머물면서 노동야학운동을 적극 후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상규, 이재표, 손길상은 진주 또는 그와 가까운 곳에서 노동야학운동에 함께 종사하면서 시를 쓰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중 특히 정상규는 1927년 11월 경부터 동아일보의 ‘어린이 페이지’를 통해 적극 동시를 발표한 바 있고, 손길상 역시 1929년 초부터 동아일보의 ‘어린이 페이지’를 통해 동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 정상규와 손길상은 같은 ‘새힘사’의 회원으로, 이재표는 ‘새싹사’ 회원<sup>34)</sup>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새힘사와 새싹사는 당시 사회주의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된 노동야학운동의 단체로 보인다.

31) 김병호, 『신춘당선가요만평』, 『조선일보』(1930. 1. 14).

32) 김병호, 『최근동요평』, 『음악과 시』~창간호(1930. 8. 15).

33) 김병호, 『사월의 소년지 동요』, 『조선일보』(1930. 4. 26).

34) 이재표의 동시 <제비>(1929. 3. 24)를 발표하면서 이름 위에 ‘晉州새싹社’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정상규, 이재표, 손길상의 동시를 보자.

① 사탕먹고 냘냘

과자먹고 냘냘

먹기잘하는 압집수길이

냘냘냘냘 일흠이냘냘

뒷집복남이 가난뱅이요

먹고심히 볼째마다

추-□만 꼴덕꼴덕

그러나 냘냘이라 잘놀됩니다

—〈냘냘이〉(1929. 3. 20) 전문

② 강남갓든제비님

봄편지물고

정든넛고향

차저웁니다

화려한이동산이

그리웁다고

강남갓든제비님

속히와다오

정들엇든넛고향엔

봄이왔서요

화려한이동산엔

숫치피엿소

—〈제비〉(1929. 3. 24) 전문

③ 멧마리 개암이

쌘터로가네

총칼들메고서

쌘터로가네

총칼이 휘도는

무서운쌘터

그래도 힘있게

쌘터로가네

어저께사흠진

동모일흔터

동모들대오로

쌘터로가네

죽어도싸우고  
죽이련다고  
넛마리째암이  
쌈터로가네

—<싸우러 가는 개미>(1929. 10. 1) 전문

이상의 동시는 중외일보에 발표된 정상규, 이재표, 손길상의 첫 작품들이다. ①의 <남남이>는 ‘압집 수길이’와 ‘뒷집 복남이’를 대립시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모순을 먹는 것에 대한 본능적 애착과 연결시켜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의식 있는 작품이기는 하나, 산문적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점이 작품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②의 <제비>는 아직 계급주의적 색채를 지니지 않고 있는 작품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봄소식을 가져다주는 제비를 매개로 표현하고 있는데, 상투적인 시상의 연결 때문에 수준 미달의 작품이 되었다. ③의 손길상의 <싸우러 가는 개미>는 ①과 같이 계급주의적 색채를 지닌 의식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개미들이 싸움터로 가면서 그들대로의 연대의식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싸움의 목적성이나 계급적 대립성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복구문에 의한 의미의 중첩이 작품의 탄력성과 긴장을 해치고 있다. 이상의 작품들은 이처럼 작품의 수준에서는 보잘 것이 없다. 그렇지만, 이를 기점으로 동시를 계속 쓰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시적 정체성을 견고히 하고 또한 작품을 쓰는 능력도 신장시켜 간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중외일보는 192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에 입각한 계급주의의 이념을 가진 시인들의 글과 작품들이 상당한 비중으로 실고 있음을 본다. 이는 중외일보가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식민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에서 사회비판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경남 의령 출신이면서 부산에 터를 두고 있었던 백산(白山) 안희제(安熙濟: 1885~1943)가 중외일보의 사장으로 있었고, 당시 카프의 핵심인물인 팔봉(八峯) 김기진(金基鎭, 1903~1985)이 시대일보를 거쳐 중외일보의 사회부장으로 있으며 학예란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보태어 생각할 수 있다. 중외일보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서 사회비판적 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들을 많이 게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당시 사회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계급주의의 경향을 추구했던 경남·부산지역 출신 시인들이 중외일보에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1930년에 들면서 중외일보 시단은 바야흐로 동시의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1929년 9월부터 주간 4면, 석간 4면으로 하루에 8면씩 발행했던 덕분에 동시 발표의 기회가 더 많았다. 거기다 1930년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이루어진 ‘중외시단(中外詩壇)’의 고정란과 1930년 3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어진 ‘아동작품(兒童作品)’란을 돕으로써 많은 동시 작품들이 발표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한 해 동안 발표된 동시 작품이 374편이나 될 정도였다.

중외일보에 동시가 많이 발표된 만큼 당연히 동시를 집중 발표한 이들도 여럿이 찾을 수 있다. 먼저 10편 이상 동시를 발표한 이들을 들면, 김오월(金五月, 김천), 이가(李街, 또는 李山街, 김천), 김석전(金石田, 또는 石田, 김천), 조종현(趙宗洙, 또는 趙鍾現)<sup>35)</sup>, 송창일(宋昌一, 평양), 윤복진(대구), 박고경(朴古京, 또는 木古京), 박호연(朴鎬淵), 이대용(李大容, 김제), 흰술(해주), 전봉제(全鳳濟), 김청파(金淸波)를 꼽을 수 있다. 경북 김천의 김오월, 이가, 김석전이 중외일보에 앞을 다투어 동시를 발표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리고 기존에 이름이 보이지 않던 조종현, 박고경, 이대용, 전봉제, 김청파, 흰술이 새로 동시를 쓴 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 중 경남·부산지역 시인으로 확실하게 들 수 있는 이는 없다. 다만, 5편 이상 동시를 발표한 이들을 꼽는 자리에서는 진주의 정상규<sup>36)</sup>의 이름이 1929년에 이어 계속 보이고, 7편의 동시<sup>37)</sup>를 발표한 서덕출(徐德出: 1906~1940, 울산)<sup>38)</sup>의 이름을 새롭게 만나게 된다. 물론 서덕출은 『어린이』~1925년 4월호에 동요시 <봄편지>가 입선된 이래 꾸준히 동시를 써왔던 터이다. 따라서 중외일보에 동시를 발표할 때는 특별

35) 『별나라』~1930년 7월호의 동요 특집으로 엮은 ‘소년문예단체작품’에 조종현은 ‘새틀사’ 소속으로 동시 <다람쥐>를 발표한 바 있다.

36) 1930년도 중외일보에 발표된 정상규의 동시는 다음과 같다. <도라오는 길>(1. 3), <고양이>(1. 15), <길동무>(2. 9), <부형새 우는 밤>(8. 31과 9. 17 재발표), <불상찬어요>(9. 19).

37) 1930년도 중외일보에 발표된 서덕출의 동시는 다음과 같다. <꼬부랑 두둑>(8. 5), <맹세>(8. 14), <울냄이 뿔냄이>(8. 24), <부형새 우는 밤>(8. 31), <허제비>(9. 3), <한심>(9. 3), <춘집 장독>(9. 8).

38) 변세화, 『서덕출론/ 순정(純情)과 비상(悲傷)의 이중주(二重奏)』, 이재철 편, 『한 국아동문학작가작품론(전편)』(서문당, 1991) 참조.

히 박스로 처리하여 기성시인으로서 대접을 받았다. 이외 1929년에 많은 동시 작품을 발표했던 이구월은 『신소년』과 『별나라』로 발표 무대를 옮기면서 1930년도 중외일보에는 단 1편의 동시만을 발표했으며, 진주의 손길상, 의령의 김고계, 그리고 진주의 이재표도 발표 지면을 이구월과 같이 옮기면서 중외일보에는 1~2편의 동시를 올리고 있을 뿐이다.<sup>39)</sup>

한편 1930년 들어 중외일보에 새로 이름을 보이는 경남·부산지역 시인을 여럿 만날 수 있다. 언양의 신고송(申鼓頌: 1907~?), 고성의 김형두(金炯斗: 1919~?), 언양의 김덕권(金德權), 마산의 김정숙(金貞淑), 통영의 김덕용(金德容)이 그들인데, 이들은 중외일보에 각각 1편 또는 2편의 동시를 발표하고 있다.<sup>40)</sup> 이들 중 신고송과 김형두는 이미 다른 지면을 통해 동시를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중외일보의 지면이 갖는 의미는 특별한 것은 아니다. 신고송은 1924년 이후부터 『신소년』, 『어린이』, 『별나라』 등에 꾸준히 동시, 아동극 등의 작품을 발표해 왔으며, 김형두 역시 1925년 이후부터 같은 잡지들에 동시를 발표해 왔다.

여기서 중외일보에 새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서덕출과 김형두의 동시 1편씩을 보기로 하자.

① 부자집 외동자  
 걸핏하면 잘우네  
 날보다 더큰애  
 말타고도 잘우네  
     울냄이 썰냄이  
     대초나무 열냄이

부자집 외동자  
 울냄이로 불러라  
 말탄애 저애기

39) 1930년도 중외일보에 이구월은 <봄의 행진곡>(2. 22), 이재표는 <설마지 인형>(1. 17), 손길상은 <언니의 노래>(1. 28), 김고계는 <나의 동생>(2. 16)과 <아바지>(3. 7)를 발표했다,

40) 1930년도 중외일보에 신고송은 <정주사집>(4. 5), 김형두는 <지렁이 장사>(3. 21)과 <바누질품>(4. 13), 김덕용은 <씨꼬리의 봄>(5. 21), <가신 누님>(5. 26), 김덕권은 <눈>(4. 8), 김정숙은 <장에 갔다 오는 길>(9. 20)을 각각 발표했다.

펠넴이로 불너라  
 울넴이 ○넴이  
 대초나무 열넴이  
 —<울넴이 펠넴이>(서덕출) 전문<sup>41)</sup>

② 커다란 지렁이가 죽었는데요  
 개아미 상두꾼이 모히어와서  
 양치기 양치기 메고서가네

큰놈은 압서서 선소래치며  
 여기는 큰강이니 주의합시오  
 뒤에사람 천천히 짜라옵시오  
 양치기 양치기 메고서가네  
 —<지렁이 장사>(김형두) 전문<sup>42)</sup>

①의 서덕출의 동시는 쉽게 잘 우는 아이를 놀리면서 부르는 풍소적인 동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여기서는 풍자의 대상을 부잣집 외동아들로 설정하여, 겉으로는 잘 울고 잘 빠지는 아이를 ‘울넴이 펠넴이’로 부르며 놀리고 있지만, 계급 모순의 현실을 비판하려는 뜻은 속에 감추어 두고 있다. 반복적인 문장구성과 ‘~넴이’의 음운론적 병렬 구성이 노래하기에 적합한 동시가 되고 있다. ②의 김형두의 동시는 사물과 현상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개미들이 모여들어 죽은 지렁이를 물고 가는 장면을 지렁이를 장사지내는 일에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다. 특히 “큰놈은 압서서 선소래치고” 뒤에 사람 천천히 따라오라고 했듯이, 장례 풍속의 적절한 비유를 보여줌으로써 비교적 성공한 작품이라 하겠다. 이처럼 서덕출과 김형두의 동시를 통해 이미 일정한 기간 작품 활동을 거친 동시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1930년도 중외일보에서 특기할 사실은 중외일보 통영지국에서 동요와 동화를 대상으로 작품현상공모를 실시한 후, 그 심사 결과를 1930년 5월 21일자에 발표했다. 동화 부문에는 입상작이 없었고, 동요 부문에만 당선작 없이 주윤석(朱潤錫)의 <웃지마라>, 임홍규(林烘圭)의 <봄>, 공경모(孔敬模)의 <우리집 암닭>, 김덕용(金德容)의 <피꼬리의 봄>이 입상되고, 김덕곤(金德坤)의

41) 중외일보(1930. 8. 24).

42) 중외일보(1930. 3. 21).

<목덕군>이 가작으로 수상했다. 심사 결과에 동화와 동요 부문에 당선작이 없었지만, <선후일언(選後一言)>에서 투고 작품이 동요 부문에 100여 편, 동화 부문에 20여 편이라 밝히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건데, 통영지역에서 아동문학의 진작을 위한 활동과 그에 따른 지역적 관심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통영지역에서 이루어진 아동문학 작품현상공모와 같은 지역별 행사를 중외일보를 통해 더 이상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진주새힘사, 진주새책사, 남해새힘사, 남해소년문예사 등 각 지역별 노동야학 단체나 문예운동 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단체 내의 아동문학 학습이나 단체 주최의 아동문학 창작 행사 등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중외일보는 193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아동문학 작품을 찾을 수 없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1930년 10월 5일부터 1931년 5월 31일까지 정간을 했고, 다시 1931년 6월 1일자로 속간을 했으나 보름을 약간 넘겨서 6월 19일자 중간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때 발행된 신문은 석간 4면으로 그 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데다 아예 학예면을 두지 않았던 까닭에 아쉽게도 동시를 비롯한 아동문학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1926년 11월 이후부터 1930년 10월까지 중외일보는 아동문학의 저변 확대와 진작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특히 경남·부산지역 시인으로 이구월과 양우정은 중외일보를 무대로 성장한 시인이라 할 정도로 많은 동시 작품을 발표했으며, 이들에 이어 정상규, 이재표, 손길상, 서덕출, 김형두, 김고계, 이영희 등도 적지 않은 동시를 발표했다. 그리고 동시는 아니지만 김병호와 이주홍도 중외일보를 통해 상당수의 시를 발표했고, 이원수, 신고송 등은 비록 한두 편에 그친 동시 작품이지만 중외일보에 예외 없이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보면 중외일보는 경남·부산지역의 아동문학, 특히 동시의 창작과 수용을 위한 중요한 공공매체로서 기능했으며, 그리고 그것이 일제 강점기에 현실비판의 아동문학 담론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 Ⅲ. 매일신보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의 동시

매일신보(每日申報)는 일제가 1910년 8월 30일 국권 침탈과 함께 기존의 항일 민족언론지였던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를 사들여 일어판 기관지였던 경성일보(京城日報)와 통합한 다음 ‘대한’ 두 자를 떼어 내고 발행했던 친일신문이다. 말하자면 매일신문은 그 사시(社是)가 ‘내선일체(內鮮一體)’였던 만큼 일제의 한국 통치를 합리화하는 언론을 펴 목적으로 발행된 신문이었다.

그런데 1920년 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되기 이전에는 한국어로 발행되는 유일한 신문이었던 만큼, 이 신문을 통해 이인직·이해조 등의 신소설과 이광수의 소설 <무정>, <개척자> 등이 연재 발표되기도 했다. 1920년 이후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민족지가 간행되자 자연스럽게 이들 민족지와 대립된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유희적인 입장에서 독자를 끌어들이고자 했다. 이 매일신보는 1938년 4월 16일 경성일보에서 완전 독립된 주식회사 체제로 경영되면서 그 제호도 매일신보(每日新報)로 바꾸었다. 이때 최린(崔麟: 1878~1950?, 함경도 함흥)이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매일신보가 이렇듯 친일신문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지니고 있지만, 일반인이 이 신문에 글이나 작품을 투고하는 경우 신문사의 사시에 따라 모두 글과 작품을 투고한 것이라 잘라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글과 작품들을 일정한 선입견에 따라 재단하기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엄정하게 검토하여 그 시비를 가리고 평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매일신보에 실린 글과 작품들을 아동문학의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 1918년까지는 이렇다 할 글과 작품들을 찾을 수 없다. 다만 1917년 1월 21일자에 진주의 김은영이 ‘신년현상문예’에 을등(乙等)으로 <일선동화론>이 뽑힌 것이 보인다. 매일신보의 사시에 충실한 글을 써서 상을 받은 셈이다. 이외 시가분야의 작품들은 잡가, 창가, 가사, 시조 양식에 해당하는 글들이 대부분인데, 대체로 매일신보의 창간을 경축하거나 유희적인 사설을 늘어놓은 것들이다.

1919년에 들면서 매일신보도 학예면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름을 알만한 이들이 시와 시조 등을 투고하여 발표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노자영(盧子泳: 1901~1940, 필명 春星, 황해도 장연)은 시 <월하(月下)의 몽

(夢)이 당선(1919. 8. 25)된 이후 <애우(愛友)를 일코>(1919. 10. 6) 등 8편의 시를 집중 발표하여 시인으로 등장했다. 시인으로서의 출발이 매일신보에서 이루어진 점이 마땅하지 않다. 노자영과는 다른 길을 간 시인이지만, 김석송(金石松: 1900~?, 충남 논산)도 시 <사나히냐?>(1919. 8. 4)와 <「불평(不平)！」의 주인공(主人公)에게>(1919. 9. 15)를 매일신보에 발표하고 있다. 문단 외곽에 있었던 그가 마땅한 작품 발표처를 찾지 못해 매일신보 지면에 작품을 발표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이외 사회주의 미술가로 이름이 알려진 김복진(金復鎭: 1901~1940, 충북 청원)이 시 1편을 젊은 시절에 의식적인 작성 없이 발표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적 사항을 잘 알 수 없지만, 최연택(崔演澤, 서울),<sup>43)</sup> 취몽생(醉夢生, 의주)<sup>44)</sup>이 각 3편, 하태용(河泰鏞), 설루생(雪樓生, 서울)<sup>45)</sup>이 2편의 시를 발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마산 오동동'의 하태용이 1922년 매일신보 신춘현상문예에 <새해의 기원(祈願)>(1922. 1. 1)이 시 부분에 1등 당선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태용은 바로 계용묵(桂鎔默: 1904~1961, 평북 선천)의 본명이다.<sup>46)</sup> 그가 어떤 연유로 마산에 거주하며 작품을 투고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외 이성태(李星泰)가 부산 거주자로 시 <낙오자(落伍者)>(1919. 8. 25)를 매일신보에 투고하여 3등 당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1919년 매일신보 지면은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지면을 마련하지 않았다. 다만, 문예작품 현상공모를 시, 소설, 산문 분야에 걸쳐 시행함으로써 경남·부산 지역 출신 인물들이 글 솜씨를 겨룰 기회를 갖게 되었다. 매일신보 1919년 8월 8일자의 현상공모 발표 명단을 보면, 김해의 조영만이 <허영>으로 단편소설 부분에 3등, 부산의 이성태와 창원의 송한이 시 부분에 3등, 그리고 산문 부분에도 경남 창원에서 투고한 이의 글이 역시 3등으로 올라 있다. 아동문학에 대한 배려가 별도로 없던 상황에서 경남·부산지역 인물이 거둔 글 솜씨의 성과

43) 시 <규원(閨怨)>(1919. 12. 1)의 이름 위에 주소지가 '아현(阿峴) 이육사(二六四)'로 나와 있다.

44) 취몽(醉夢)의 시 <바이오린>(1919. 12. 8)에서 이름 위에 의주(義州)로 나와 있다.

45) 시 <운명(運命)>(1919. 8. 25)에서 이름 위에 '경성(京城)'으로 나와 있다.

46) 권영민 편, 『한국근대문인사전』(아세아문화사, 1990), 12쪽에 의하면 계용묵은 1920년에 소년지 『새소리』에 시 <글방이 깨어져서>가 2등 당선된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면 성과이다.

그런데 매일신보도 1920년대에 들면서 아동문학에 대한 배려를 하기 시작한다. 1921년 말의 문예현상 공고를 보면, 동화와 동요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1923년 말부터 ‘어린이의 문예란’을 별도로 신설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학작품보다 수필 등 산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경남·부산지역 출신으로 확인되는 인물이 1923년까지 동화와 동요 부문에 수상한 이는 없다. 이 시기에 매일신보에 발표된 작품들은 여전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노월(蘆月, 본명 林長和, 생몰년대 미상, 평남 진남포)<sup>47)</sup>의 20편, 박월탄(朴月灘, 본명 朴鍾和: 1901~1981, 서울)의 11편, 녹동생(綠東生, =崔湖東)의 10편, 유도순(劉道順: 1904~1939?, 평북 영변)<sup>48)</sup>의 3편 등 시작품들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들 중 최호동과 유도순은 뒤에 많은 동시를 쓴 시인이기도 한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리고 특기할 점으로 윤석중의 동시 <어베 읊는 아해>가 매일신보 1921년 3월 1일자에 실려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 작품이 1911년생의 동시 시인인 윤석중의 것이라면 그는 불과 11세에 동시를 써서 작품을 발표한 셈이 된다.

192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매일신보에서 아동문학 작품들을 좀더 자주 볼 수 있게 된다. 1924년과 1925년에 발표된 시가 분야의 작품 발표 상황을 누계로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년도	시	시조	동시	계
1924	80		12	93
1925	55		31	86
계	135	0	43	179

위의 표를 보면, 1923년 이전까지 동시가 거의 없었던 사정에 비하면 동시 작품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2년 동안 누적된 동시 작품이 전

47) 즐고, 『노월 입장화의 유티주의 수용과 문학』, 『한국 근대문학의 정신사론』(삼지원, 1993), 284~314쪽.

48) 조성국, 『유도순 시 연구』, 『서강어문』 제7집(서강어문학회, 1990), 253쪽.

체의 24.02%가 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동시 작품 수록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동아일보, 중외일보, 시대일보 등 민족언론지와 비교하면 동시를 비롯한 시작품의 발표 지면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24년도의 경우, 학영(李鶴泳), 고용준(高容俊), 권태동(權泰東), ‘무지개’란 필명을 쓴 이이가 각 2편, 황문경(黃文卿, 부산), 이형월(李螢月, 서울), 조홍연(趙弘淵, 경기 개성), 이만옥, 나조화(羅朝華)가 각각 1편의 동시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경남·부산지역 인물로 파악되는 이가 황문경인데, 그의 동시 <겨울 아침>(1924. 1. 1)은 1924년 현상문예의 동요 부문에서 1등한 작품이다. 그런데 황문경의 동시를 이후의 지면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시작 활동을 계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어떤 작품이었는지 부분(전체 3연 중 1, 2연)을 보기로 하자.

바람바람 겨울사람  
 너왜이리 찬디차니  
 바람바람 찬바람아  
 지발덕분 부지마라

우리언니 밥하는대  
 손등터져 압하힘나  
 손등터져 아쥬압하  
 눈물방울 썩러지고

겨울에 손등이 터져 아픈데도 찬바람을 맞으며 밥을 지어야 하는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찬바람이 멈추어지기를 바라는 소박한 동심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4.4조의 음수율을 따르는 시 형식이 고답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25년도에는 동시 작품은 많이 늘어났지만, 고갑린(高甲麟)이 5편, 윤봉현(尹鳳鉉, 서울), 김덕근(金德根)이 각 2편씩이고, 나머지는 모두 1편씩 작품 투고를 하고 있다. 그만큼 동시를 집중적으로 발표한 이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경남·부산지역과 연고를 가진 이의 작품으로 김피득(金彼得, 경남 합천)의 <나비잡기>(1. 25), 이정호 [李定鎬, 필명: 미소(微笑), 1906~1938,

경남 의령]의 동시 <보고 싶은 어머니>(12. 21), 그리고 엄흥섭(嚴興燮: 1906~?,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부터 1920년대 말까지 진주에서 생활함)의 동시 <하늘 노래>(7. 10)가 보인다.

여기서 이정호의 <보고 싶은 어머니>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동시 <언니야 래일은 언제나 오니?>(시대일보, 1926. 1. 5)보다 먼저 발표된 작품인 점에서 관심을 끌기도 하지만, 두 작품 모두 어머니의 부재에 따른 애틋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한다. 또한 엄흥섭의 <하늘 노래>는 현상문에 동요 부문에 은상을 수상한 작품인데, 그의 시로 이보다 앞서 발표된 것이 있지만,<sup>49)</sup> 동시 작품으로는 이 작품이 가장 앞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그의 동시 시인으로서의 출발이 매일신보에서 시작된 점이 그의 문학 행보에 이따금 발목을 걸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저어함이 있다.<sup>50)</sup> 여기서 이 작품의 부분(전체 4연 중 1, 2연)을 보자.

푸른하늘밝은하늘  
 꽃엮는하늘  
 안개속에해님이  
 씨도는하늘  
 중달새비이비이  
 썬노는하늘  
 밝기도밝기도  
 곱기도해라

49) 박태일에 의하면, 경남공립사범학교의 교우회지인 『비봉지연(飛鳳之緣)』(1925. 4)에 김병호와 김성봉이 일어서를 발표하고 있고, 엄흥섭이 『가을에 떠러진 나무잎 하나』라는 시를 싣고 있다고 했다. 박태일, 『경남지역 계급주의 시문학 연구』, 『어문학』 제80집(한국어문학회, 2003. 6), 295쪽의 각주 참조.

50) 이렇게 보면, 1924년과 1925년에 매일신보의 지면에 이외의 시인 이름들이 여럿이 만날 수 있다. 김기진(金基鎭: 1903~1985, 충북 청원)은 시 <오리의 송장>(1924. 11. 16)을, 포석(抱石, 본명 趙明熙: 1894~1942, 충북 진천)은 시 <단장(短章)>(1924. 11. 30)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사회주의문학의 이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홍효민(洪曉民: 1904~1975, 경기 연천)은 홍은성(洪銀星, 은성(銀星), 은별이란 필명으로 매일신보에 1924년 한해에 7편의 시를 발표했다. 또한 한때 동반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던 이효석(李孝石: 1907~1942, 강원 평창)이 시 <봄>(1925. 1. 18)을 매일신보에 발표하고 있는 점도 이외의 일이다.

희고도흰소음구름  
 썬노는하늘  
 사자구름바위구름  
 썬노는하늘  
 소낙비줄-줄-  
 번개는빠척  
 우루두짜-짜  
 재미있서라

하늘의 변화무쌍함을 호기심 어린 동심으로 바라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세계를 ‘밝고’, ‘곱고’, ‘재미있게’ 보고 있는 긍정적 시선이 심사자의 눈길을 끌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당시만 해도 엄홍섭의 시가 사회주의의 이념에 물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시작품 발표의 수는 크게 늘어나지만, 동시의 발표는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년도	시	시조	동시	기타	계
1928	32	9	7		47
1929	2	3	0	4	9

1926년도에는 동시를 2편 이상 발표한 이로 마춘서(馬春曙), 마운계(馬雲谿), 천정철, 방은주(方恩珠), 우송생(雨松生)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 경남·부산지역과 연고를 가진 이는 없는 듯하다. 다만, 여기서 동시를 쓴 시인들은 아니지만, 서병수(徐丙守), 춘구(春邱, 盧春邱, 철산),<sup>51)</sup> 노재헌(盧在憲), 박누월(朴湑月), 성아(星兒, =林和, 서울),<sup>52)</sup> 배상철(裵相哲), 춘강(春岡, =高斗東, 경남

51) 시 <도수장(屠獸場)>(1926. 9. 26)에서 이름 위에 ‘철산(鐵山)’으로 표시되어 있다.

52) 임화(林和: 1908~1953, 서울)는 1926년에 본명인 임인식(林仁植) 또는 성아(星兒)란 필명으로 시 7편을 매일신보에 발표하고 있다. 한때 카프의 서기장이었던 그가 문단에 등장한 무대가 매일신보였다는 사실은 일제 강점기 문학 현실의 아이러니이다. 그리고 고엽(孤葉) 또는 임고엽(林孤葉)이란 필명을 쓴 이가 시, 동시(1편), 시조를 포함하여 5편을 발표하고 있는데, 당시의 정황상 임화일 개

통영), 김성진(金聲振, 경기 이천)<sup>53)</sup>이 다수의 시를 발표한 이로 꼽히고, 망향초(望鄕草, =金明淳), 석정(夕汀, =辛夕汀)의 이름이 작품을 발표한 이로 눈에 띈다. 이중 시조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고두동(高斗東, 1903~1994, 경남 통영)이 춘강(春岡) 또는 춘강생(春岡生)이란 필명으로 시를 2편 발표하고 있는 것이 경남·부산지역과 관련된 사항이다.

1927년에는 동시를 발표한 이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전에 시를 발표했던 이들 중에서 여럿이 동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방은주, 석영록, 박누월, 노춘구, 망향초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정구(李貞求, 원산), 이경로(李璟魯), 김주찬(金柱贊), 양정섭(楊貞燮), 최인준(崔仁俊), 묵파생(默破生), 양창호(梁昌浩) 등의 이름이 새로 보인다. 경남·부산지역에 연고를 둔 시인으로 이 시기에 동시를 발표한 시인은 없는 듯하다. 단, 경남 고성 출신의 김재홍(金在洪)이 시조 <부음(訃音)> 1편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1928년부터 1929년까지 매일신보에 발표된 시를 개관해 보자.

년도	시	시조	동시	계
1926	186	2	29	217
1927	190	25	40	255
계	376	27	69	472

이상에서 보듯이, 1928년부터 1929년까지는 시작품의 발표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동시의 경우, 1928년에는 고작 7편, 1929년에는 아예 한 편도 없다. 4면 체제의 발행이 갖는 한계에다 일제 기관지라는 신문 자체의 성격, 거기다 아동문학에 관한 편집진의 관심 부족 등의 요인이 합쳐져서 이러한 상황을 낳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의 매일신보 지상에서 문학작품의 발표는 극도로 위축되어 있었으며, 특히 동시의 발표는 거의 소멸 직전까지 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1928년에 발표된 7편의 작품들을 시인별로 보면, 함석훈(咸奭勳)이 5편, 현동렴(玄東濂, 개성)이 1편, 신암동인(新岩洞人, 한천) 1편으로

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

53) 시 <나의 연극(演劇)>(1926. 10. 17)에서 이름 위에 ‘이천(伊川)’으로 나와 있다.

나타난다. 이들 작품에서 경남·부산지역과 연고를 가진 이의 작품은 다행히 한 편도 없는데, 그만큼 의식적이었던 그렇지 않았든 친일의 언론에 붓을 내밀지 않았던 셈이다.

그런데 1930년에 들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1930년 2월 1일부터 4면 체제에서 8면 체제로 증면되었는데, 8면 체제에서 제4면과 제5면을 각각 문예란과 가정란으로 배치했다. 여기서 제4면의 문예란은 2월 11일부터 ‘아동작품’란을 두고, 작품 현상모집을 했다. 아동작품의 모집은 초기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이루어졌다가 나중에는 하루가 머다 하지 않고 거의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작품’란은 ‘소년문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다시 ‘소년소녀문단’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란에 선정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비록 짤막하지만 개별적으로 비평을 붙여 주었다. 그러니 각 지역에서 시적 재능이 있었던 학생들이 다수 작품을 투고하게 되고, 이들 가운데 더러는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한 끝에 나중에는 기성시인과 같은 대접을 받기도 했다.

우선 1930년에 발표된 시작품들을 전체적으로 개관해 보자.

년도	시	시조	동시	기타	계
1930	61	0	504	2	567

이상에서 보듯이, 1930년 한 해 동안 발표된 동시 작품의 수는 500편을 넘고, 그것이 성인시의 작품수에 비해 8배를 넘고 있다. 이런 수치만으로 보면 1930년 매일신보 지면은 동시의 전성시대를 만들었다고 할 만하다. 1929년에 동시가 한편도 발표되지 않아서 극도의 침체기를 맞았던 사정이 너무나 달라진 급반전의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다.

동시 작품들이 대부분 아이들의 투고 작품으로 채워진 것이지만, 발표된 동시 작품수가 많았던 만큼 동시를 집중적으로 발표한 이들을 여럿이 찾을 수 있다. 5편 이상의 동시 작품을 투고한 이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김기주(金基柱, 평원) 18편, 한춘혜(韓春惠, 함흥) 17편, 김삼묵(金尙默, 진남포) 16편, 백학서(白鶴瑞, 신천) 13편,<sup>54)</sup> 이일상(李日相, 전주) 10편, 오광

호(吳光鎬, 평양) 10편, 남응손(南應孫, 고산) 10편, 남석중(南夕鍾, 夕鍾, 서울)<sup>55)</sup> 10편, 김준홍(金俊洪, 함흥) 9편, 김학헌(金學憲, 서울) 9편, 박복주(朴福柱, 고흥) 8편, 박윤식(朴潤植, 인천) 8편, 한유일(韓裕駟, 함흥) 8편, 김병순(金秉淳, 박천) 7편, 윤지월(尹池月, 이원) 7편, 이흥식(李興植, 이천) 6편, 탁목조(啄木鳥) 6편, 정운환(鄭潤煥, 남해) 6편, 박대영(朴大永, 남해) 5편, 김성도(金聖道, 영천) 5편, 김재영(金載英) 5편, 박기룡(朴奇龍) 5편 등

매일신보에 동시를 발표한 이들은 지역별로 보아 전국적이라 할 만하다. 위의 명단에는 없지만, 3편 이상을 발표한 이들까지 합하면 지역별 작품 투고자의 수는 크게 늘어난다. 이들 중 김기주, 한춘혜, 남석중, 김준홍, 김학헌, 탁목조 등은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한 끝에 기성시인의 대접을 받는 정도까지 발전했다.

동시 작품을 투고한 이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남·부산지역에 연고가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 경남 남해 출신인 정운환과 박대영이 5편 이상 작품을 발표한 이로 나타나고, 2편의 동시 작품을 발표한 경남 고성 출신의 오관수(吳官守)를 더 만날 수 있다. 이들의 동시 작품을 한편씩 보기로 하자.

① 가을밤 식원한밤  
베레우는밤  
하늘엔 별도만타  
등불도만타

물건너 고향에는  
우리누나밤  
남포를 켜놔코서  
버선깁는밤

가을밤 외로운밤  
나그네의밤

54) 백효촌(白曉村, 신천)이란 필명을 쓴 이가 백학서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백학서(白鶴瑞)의 동시 작품은 16편이 된다.

55) 남석중(南夕鍾) 또는 석중(夕鍾)이란 필명을 쓴 이는 남응손(南應孫)일 가능성이 있다. 남응손은 1928년부터 중외일보에 동시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1930년에는 매일신보 지상의 학예란에 시, 동시, 비평 등의 글을 통해 자주 이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당시 학예란의 편집 담당 기자를 하지 않았는가 한다.

뜰압헤 오동나무  
락엽지는밤

산넘어 공장에는  
우리언니밤  
쇠소리 기계소리  
잠못자는밤

- <가을밤>(정윤환) 전문

② 이몸은 조고마한 일꾼이외다  
낮에는 들에가서 짱을파고요  
밤이면 밤들도록 글을배워요

이몸은 조고마한 어린몸이나  
숫까지 싸어나올 용사이외다  
동무여 힘이스게 나아가보자  
우리의 장래는- 멀지안탄다  
서로이 손목잡고 나와가보자  
힘있게 굿세계 싸워틀보자

- <엇편 아희 노래>(박대영) 전문

③ 해는마저서산에  
넘어가는데  
공장에간누나는  
웨오지안나  
앗춤에늦게가서  
쭈지람듯고  
도라오는길에서  
울고잇는가

- <누나>(오관수) 전문

①의 동시 <가을밤>은 ‘남해소년문예사’의 일원으로 있었던 정윤환의 동시이다.<sup>56)</sup> 시의 화자는 가을밤을 배경으로 돈벌이를 하러 고향을 떠나 뭍으로 간 ‘누나’의 힘든 삶을 생각하면서 누나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1

56) 『별나라』 1930년 7월호에서 동요 특집으로 엮은 ‘소년문예단체작품’에서 정윤환은 ‘남해소년문예사(南海少年文藝社)’ 소속으로 동요 <여름밤>을 발표한 바 있다.

연과 3연은 가을밤의 자연 정경을 읊고 있다면, 2연과 4연은 누나의 노동 현실과 연결된 밤을 떠올리고 있다. 그런데 1연, 3연이 각각 2연, 4연과 상응하거나 일정한 연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는 시상의 집중을 꺾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밤’의 반복적 표현을 통해 압운 효과를 얻고자 한 점에서 감쌀 만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②의 <엇편 아희 노래>(박대영)는 시적 자아의 의지적 표현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공부한다는 시적 화자의 처지는 ‘남해새힘사’에서 노동야학 활동을 하고 있던 시인<sup>57)</sup>의 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도 한데, 이런 자신의 처지를 토대로 현실 투쟁의 전위성을 나타내고 있다. ③의 동시 <누나>(오관수)도 계급 투쟁의 전위성은 없지만 현실 비판의 시각을 기초로 한 작품이다. 공장 여직공으로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 ‘누나’의 딱한 처지는 계급 모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두 작품이 직접적으로 계급적 관점에 입각한 투쟁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근면주의에 입각한 현실 낙관주의에 기울어진 작품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일제 강점기의 민족현실에 대한 일정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동시 작품들은 매일신보의 이념적 지향과는 분명 상당한 거리에 있다. 매일신보에 실린 작품들이 모두 현실순응의 태도나 친일의 이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선입견에 따라 매일신보에 발표된 작품들을 일방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점을 이들 작품들이 웅변하고 있는 셈이다.

1910년부터 1930년까지 매일신보에서 경남·부산지역과 연고를 가진 이들은 사실 몇 되지 않는다. 1920년대 초반에 이성태, 황문경, 엄홍섭 등의 이름이 보이기는 했으나 모두 작품 현상모집 때에만 잠시 시적 재능을 인정받는 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1930년에 들어 정윤환, 박대성, 오관수의 동시 등 여러 작품들이 발표되었지만, 이들 작품들은 매일신보의 매체적 특성과는 거리가 있는 작품들로 오히려 일제 강점기 민족현실을 비판적으로 떠올리고 있었다. 경남·부산지역 시인들 중 더러는 매일신보의 이념적 지향이나 그 매체적 특성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작품을 투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57) 매일신보 1930년 10월 22일에 발표된 박대영의 시 <가을밤>에서 발표자 이름 위에 ‘南海새힘社’라고 기록되어 있다.

## IV. 결론

이 글은 일제 강점기에 발행된 일간신문들을 대상으로, 이들 신문에 발표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작품들을 조사 연구하여, 해당 지역 아동문학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동문학의 연구에서 거의 주목하지 못했던 일간신문들인 시대일보, 중외일보, 매일신보를 대상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검토의 대상 시기를 1910년부터 1930년까지 설정하는 한편 검토의 대상 장르도 동시에 집중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지금까지 조사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24년 8월부터 1926년 8월까지 발행된 시대일보에는 225편의 동시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이들 작품들 중에 김소운(부산)의 첫 발표 작품이기도 한 동시 3편과 L. K. So(부산)란 필명으로 발표된 동시 2편이 있었고, 1926년 신춘문에 현상모집에서 당선작 없이 2등으로 뽑힌 이정호(필명 이미소, 의령)의 동시 <언니야, 래일은 언제나 오니?>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대일보가 발행된 1920년대 중반을 전후한 시기는 아직 아동문학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동문학 작품들의 발표가 부진했다. 따라서 경남·부산 지역 관련 시인들의 동시 발표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둘째, 중외일보는 시대일보에서 제호가 바뀌어 속간된 것이다. 1926년 11월부터 1931년 6월까지 발행되었는데,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경쟁하며 항일과 사회비판의 언론을 강하게 펼쳤다. 중외일보에 발표된 아동문학, 특히 동시 작품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났는데, 이들 작품들 중 상당수가 항일과 사회비판의 담론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경남·부산지역 시인들이 상당히 폭넓게 참여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이구월(마산생이나 주로 통영 거주), 양우정(함안)은 중외일보를 무대로 등장한 시인이라 할 수 있고, 이들에 이어서 정상규(진주), 이재표(진주), 손길상(진주), 서덕출(울산), 김형두(고성), 김고계(의령), 이영희(의령) 등이 상당수의 동시를 발표했다. 이들 동시 작품들을 포함하여, 특히 1929년과 1930년에는 중외일보에 많은 동시 작품들이 발표됨으로써 동시의 전성시대를 이루었으며, 경남·부산지역의 동시 진흥에도 크게 기여했다.

셋째, 일제의 기관지나 다름없었던 매일신보는 1921년 말부터 문예작품의 현상 공모를 실시하면서 동화, 동시 등 아동문학 작품의 투고도 받았다. 그러나 초기에는 현상공모로 투고하는 작품들 이외에 아동문학 작품들이 게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192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아동문학 작품들을 좀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지만, 다른 일간신문들에 비하면 아동문학 작품들의 게재는 매우 빈약했다. 이런 가운데 황문경(부산), 이정호(필명 미소, 의령), 엄홍섭(충남 논산생이나 진주에서 생활)의 동시가 모두 문예작품 현상 공모를 거쳐 발표되었으나, 경남·부산지역 시인들의 시적 재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1928년부터 1929년까지는 거의 동시가 발표되지 않았다. 1930년에 들어 ‘아동작품’, ‘소년문단’, ‘소년소녀문단’ 등으로 변화된 고정란이 생기면서 동시 작품은 한해 500편을 넘기는 풍년을 맞았다. 이들 작품 가운데 정윤환(남해), 박대영(남해), 오관수(고성)가 매일신보의 신문 성격과 달리 사회비판의식을 바탕으로 한 동시 작품을 보였다. 매일신보의 매체적 특성에 대한 선입관에 따라 이들 작품들을 일방적으로 재단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 작품들이다.

이상에서 일제 강점기 초기부터 1930년까지 발행된 발행된 시대일보, 중외일보, 매일신보의 지면들을 통해 경남·부산지역 시인들의 동시 작품들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파악하면서, 시인별 중요 동시 작품들의 성격을 분석, 고찰했다. 그러나 남은 과제가 많다. 이미 검토한 일간지 신문들을 대상으로 아동소설, 아동극, 아동문학 평론의 글도 조사, 연구해야 하고, 중외일보에 이어진 중앙일보와 조선중앙일보, 그리고 1931년 이후 발행된 매일신보를 대상으로 아동문학 전반을 조사,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거기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발표된 아동문학 작품들도 꼼꼼하게 살펴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전개과정을 한층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일간지를 통해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을 중요 제재별 또는 주제별로 고찰해 보는 것도 남은 일거리이다.

주제어 : 아동문학, 동시, 시대일보, 중외일보, 매일신보, 지역문학, 경남문학, 부산문학, 김소운, 엄홍섭, 양우정, 이구월, 정상규, 이재표, 손길상, 서덕출, 김형두, 김고계, 이영희, 정윤환, 박대성, 오관수

## 참고문헌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매일신보』, 『신소년』, 『별나라』, 『어린이』 등 1910년부터 1930년까지 자료.

강희근, 『경남문학의 흐름』, 보고서, 2001. 11.

권영민 편, 『한국근대문인사전』, 아세아문화사, 1990.

권영민, 『한국계급문학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9.

김상욱, 『숲에서 어린이에게 길을 묻다 - 김상욱 아동문학평론집』, 창작과비평사, 2002.

김자연, 『아동문학 이해와 창작의 실제』, 청동거울, 2003. 3.

김정의, 『한국소년운동사』, 민족문화사, 1992.

김정의, 『한국의 소년운동』, 도서출판 해안, 1999.

김학동 외, 『김광균연구』, 국학자료원, 2002.

박경수, 『계급주의 동시 이해의 밑거름 — ‘푸로레타리아동요집’ 『불별』에 대하여』, 『지역문학연구』 제7집,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3. 9.

박경수,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동시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5집, 한국문학회, 2003. 12.

박경수 편, 『잊혀진 시인, 김병호의 시세계』, 국학자료원, 2004. 2.

박경수, 『한국 근대문학의 정신사론』, 삼지원, 1993.

박민수, 『아동문학의 시학』, 춘천교육대학교 출판부, 1998.

박태일 엮음, 『가려 뽑은 경남·부산의 시(1) — 두류산에서 낙동강에서』,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박태일, 『경남·부산지역문학 연구 1』, 청동거울, 2004. 5.

박태일, 『경남지역 계급주의 시문학 연구』, 『어문학』 제80집, 한국어문학회, 2003. 6.

박화목, 『한국동화 역사』, 『신아동문학론』, 보이스사, 1982. 8.

서범석 편저, 『우정 양우정의 시문학』, 보고서, 1999. 1.

원종찬,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비평사, 2001.

- 이명재 편, 『북한문학사전』, 국학자료원, 1995.  
이상현, 『한국아동문학론』, 동화출판공사, 1976.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개정판, 서문당, 1983.  
이재철 편, 『한국아동문학 작가작품론(전편)』, 서문당, 1991.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조성국, 『유도순 시 연구』, 『서강어문』 제7집, 서강어문학회, 1990.  
최지훈, 『한국 현대아동문학론』, 아동문예, 1991. 5.

<Abstract>

A Study on the Juvenile Literature in  
Kyeongnam and Busan through the Daily  
Presses in the Colonial Period  
- centering around children's verse published in  
Sidae-ilbo, Jungeui-ilbo, and  
Mail-sinbo(1910~1930)

Park, Kyung-Su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oroughly and research children's verse which had been published in the daily presses(1910~1930) as a part of researches about juvenile literature in Kyungnam and Busan region in the colonial period. The results so far achieved are in substance as follows.

1. I could investigate 48pieces of children's verses among 225pieces of poetry in Sidae-ilbo(1924. 8~1926. 8). These children's verses contain 3 pieces of So-Un Kim(from Busan)'s, 2pieces of L. K. So(from Busan)'s, and a piece of Jung-Ho Lee(from Uiryeong)'s. Especially <Gaeami(i. e. ant)> of So-Un Kim is his first poem, and <Unnija, when shall we meet 'tomorrow'> of Jung-Ho Lee is the second class without the first at the part of children's song in the Spring Literary Contest.

2. In Jungeui-ilbo(1926. 11~1930. 10), I could find 1657 pieces of children's verse. Among these pieces, the rate of children's verse is about 52 percent. So we can say that Jungeui-ilbo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verse as the public printed media. In particular as a poet of Kyungnam and Busan, Gu-Wol Lee(from Masan), U-Jung Yang(from Haman) published lots of poems, and succeeding them Sang-Kyu

Jung(from Jinju), Jae-Pyeo Lee(from Jinju), Gil-Sang Son(from Jinju), Duck-Chul Seo(from Ulsan), Hyung-Du Kim(from Goseong), Go-Gae Kim(from Uiryeong), and Young-Hee Lee(from Uiryeong) contributed a many good works in this paper. Of course except them we can meet Won-Su Lee(from Yangsan), Go-Song Sin(from Unyang) and others as a writer of children's verse in this region.

3. Mail-sinbo is a pro-Japanese newspaper from 1910~1945, but it is the only one which had been published by Korean until 1920. The public often contributed his works regardless of the quality of this pro-Japanese newspaper. So we should view and consider the world of children's verse objectively for study. When I surveyed poems including children's verses on this paper from this point, I could find unexpectedly many works that criticize hard facts of life. As a poet of Kyungnam and Busan, Sung-Tae Lee(from Busan), Mun-Kyung Whang(from Busan), and Hung-Seob Eum(from Nonsan in Chungnam, but lived in Jinju until the late of 1920s) contributed their own children's verse and received a prize in the literary contest. In 1930 Yun-Whan Jung(from Namhae), Dae-Seong Park(from Namhae), and Kwan-Su Oh(from Goseong)'s works were published in this paper, but were critical apart from the quality of this paper.

Key Words : juvenile literature, children's verse, Sidae-ilbo, Jungeui-ilbo, Mail-sinbo, regional literature, literature of Kyungnam region, literature of Busan region, So-Un Kim, Hung-Seob Eum, U-Jung Yang, Gu-Wol Lee, Sang-Kyu Jung, Jae-Pyo Lee, Gil-Sang Son, Duck-Chul Seo, Hyung-Du Kim, Go-Gae Kim, Young-Hee Lee, Yun-Whan Jung, Dae-Seong Park, Kwan-Su Oh